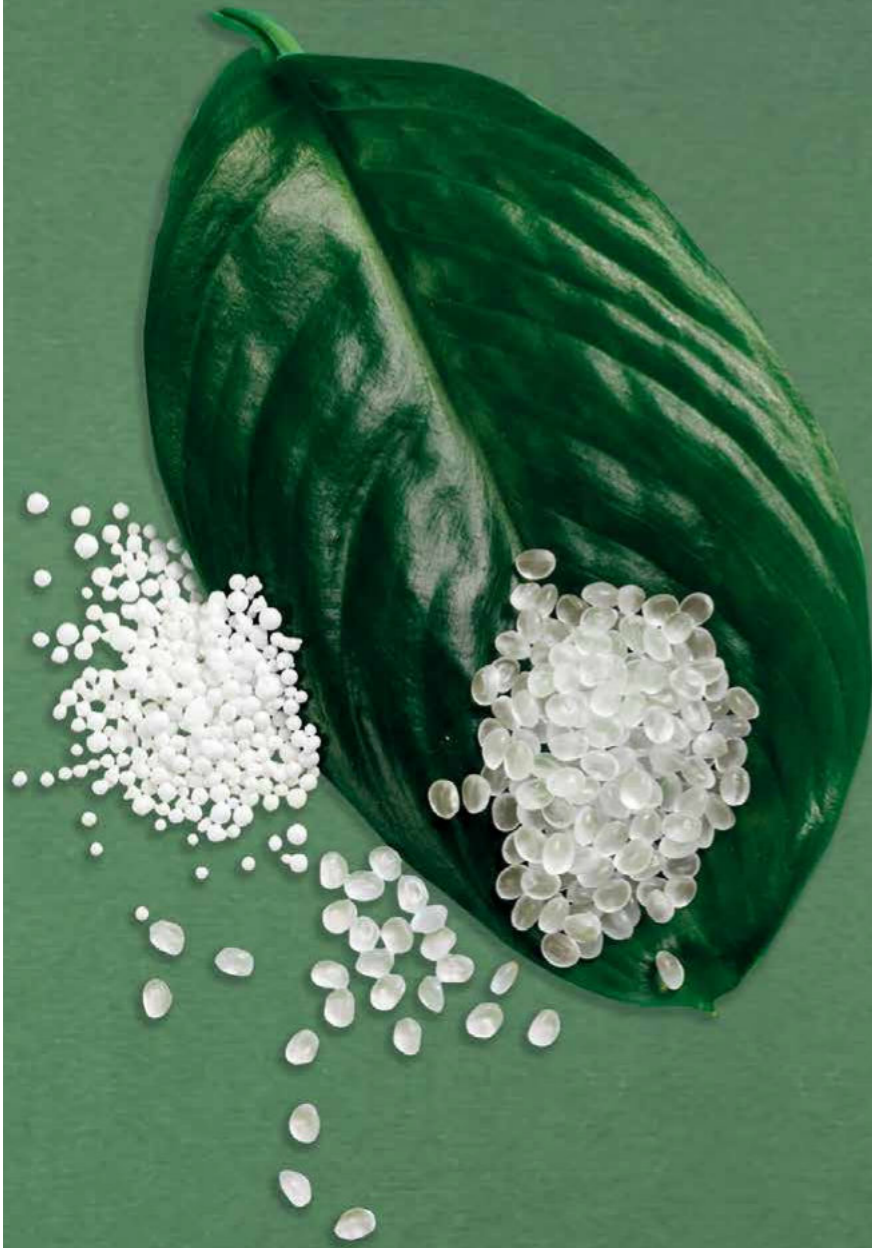


**RE**duce.  
use.  
cycle.  
peat.



## 세상은 편리하게 지구는 이롭게

### 폴리미래가 만드는 선순환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최종 제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폴리미래가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제품이라도  
폴리프로필렌의 품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기술!  
폴리미래의 노하우와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

# Poly Village

2022 Autumn | Vol.49



## Hello Autumn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따뜻한 색으로 물든 자연을 보니  
가을이 찾아왔음을 알겠네  
이제 우리 마음도 서서히  
가을 향기로 물들거야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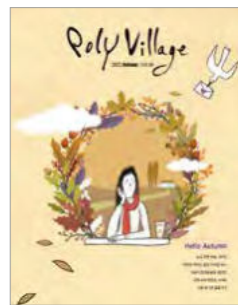
- 생텍쥐페리 -



# CONTENTS

## Poly Village

Vol.49 | 2022 Autumn



###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49호  
발행인 김방현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49 2022 Autumn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기획 사보기획팀  
디자인·제작 에브리딩디자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김영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TEL (02)2167-8914

## With Poly PEOPLE

- 02 **생각의 깊이**
- 06 **CEO 레터**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직원 여러분,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 08 **아주 특별한 만남**  
폴리미래의 미래 주역들, 9인 9색 매력발산  
신입사원
- 14 **자랑 좀 할게요!**  
경영의 언어,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재무팀을 만나다  
재무팀
- 18 **폴리 특앤특**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폴리미래 '안전제일' 4행시
- 22 **포커스**  
폴리미래 김방현 대표이사, 2022 산업단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 With Poly ISSUE

- 24 **오늘 폴리미래**  
건강한 직장생활!  
사업자산관리팀 이광섭 상무
  - 26 **폴리미래 브리핑**  
폴리미래 ESG 경영의 원동력, 기계적 재활용!  
지속성장팀 정상호 차장
- 
- 30 **뉴스 브리핑**
  - 35 **인사동정**
  - 36 **테마 리포트**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준비가 우선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박호정 교수



## With Poly LIFE

- 40 **트렌드 인포**  
MZ세대들의 잠재된 취향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할머니얼'  
자유기고가 명소연
- 
- 42 **컬처 & 컬처**  
당만의 계절 가을과 함께 문화·예술 감성 충전 시작!  
문화칼럼니스트 주연
  - 46 **퀴즈**



폴 고갱 센강 변의 크레인 1875 캔버스에 유채 77.2×119.8cm 국립현대미술관 이진희컬렉션

##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년 Poly Village 가을호를 통해 저는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폴리미래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주주, 관계사, 고객 및 지역사회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직원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간 당면했던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회사의 지속 성장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엔데믹 시대로 가는 지금 이 길목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를 직면하게 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막대한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진행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및 중국 봉쇄 영향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퍼펙트스톰이 밀려올 것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역시 매우 불확실한 시장 경제적 환경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및 세계적인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의 문제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리미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확실성, 즉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히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영업/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제품차별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기대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것입니다.

폴리미래의 모든 임직원이 One Winning Team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지속 성장하는 폴리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된 응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 Leader's Message



# 폴리미래의 미래 주역들, 9인 9색 매력발산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살랑입니다. 가을에 곡식이 익고 열매가 풍성하게 영글듯이, 우리 회사에도 폴리미래를 더욱 풍성하고 단단하게 해줄 신입사원 9명이 찾아왔습니다.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했던 그간의 치열한 기록들, 이어 합격의 소식, 좋은 선배님, 동기들과 함께 한 잊지 못할 시간들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9인 9색,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신입사원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폴리미래의 핵심 가치와 함께 경쟁력 있는 폴리미래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ADTS 직무로 입사한 이태경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는 이전 직장에서 자동차용 복합 PP 개발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폴리미래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보며 느낀 건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올해 경력직 채용에 망설임 없이 지원한 이유입니다. 제가 몸소 느끼고 경험한 폴리미래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과 관련해 많은 이슈 속에서도 폴리미래는 무사고 10년을 넘어 계속해서 무사고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전에 관련한 개선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현장에서 노력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회사의 안전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닌 회사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미래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친환경 소재 적용 및 전기차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경량화 소재가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래 가능성 폴리프로필렌 시장 선점 경쟁력을 가속하기 위해 앞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폴리미래만의 개발 인프라 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다져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스페셜티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폴리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경 대리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폴리미래에서의 차세대 주역은 바로 나!”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주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당시 기업조사를 하며 폴리미래라는 기업은 무사고 10년을 달성할 정도로 안전을 매우 중요시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조사를 통해 폴리미래에 입사하고 싶은 굳은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폴리미래에 입사한 후에는 어떻게 폴리미래가 무사고 10년을 달성하고 그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었는지 공장 내 구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구호는 “안전하지 않으면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였습니다. 이 구호를 통해 저는 폴리미래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직원들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대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아닌 새로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볼링과 같은 친목 도모를 통해 힘들었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업을 해주신 선배 강사 엔지니어분들께 모르는 내용을 여쭙보면 이해가 될 때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업에 배치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성장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지현 주임

위경재 주임

“좋은 동기, 좋은 선후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열정 넘치는 폴리미래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6월에 입사한 화공 엔지니어 여지구 주임입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고 폴리미래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고분자를 전공한 저는 늘 폴리머 산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범용성 고분자 PP를 생산하는 폴리미래는 반드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 1등이었습니다. 서류부터 최종 면접 합격 발표까지 매 순간 기뻐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생생히 떠오릅니다. 최종 합격 후 부푼 마음으로 머나먼 타지인 여수로 내려와 교육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개월간의 신입 교육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벅차 보였던 교육 일정이 막상 지나고 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폴리미래의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공정, 개발, 영업, 현장 등 넓은 분야를 빠른 시간 안에 체득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좋은 동기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훌륭한 선배님들의 열정 넘치는 교육과 뜻깊은 조언들 덕분에 회사에 적응해 나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자양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폴리미래의 한 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좋은 동기, 좋은 선후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지구 주임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에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 위경재입니다. 폴리미래의 면접을 준비하던 시기에 우연한 기회로 폴리미래 사보에 실린 선배님들의 파워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제가 사보에 실릴 파워 인터뷰를 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고 기쁜 마음입니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플랜트 과정, 영어회화, 산업안전기사 취득 등 다방면으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난 노력의 결과로 여러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을 한 회사 중 단연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갖춘 폴리미래라면 엔지니어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마음속 1순위 기업인 폴리미래에 당당하게 입사하여 선후배들, 가족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 온 이후,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신 많은 조언 중 “폴리미래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가치관과 일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던 엔지니어의 모습은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배울 게 한참 남은 햇병아리 엔지니어지만 계속 정진하여 선배님들에게 뒤지지 않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준 주임

“폴리미래의 비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인사·노사협력팀 신입사원 이동준 주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입사했던 때가 어그제 같은데, 어느덧 폴리미래와 함께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입사 전 외국인 투자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며 폴리미래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합격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매일 폴리미래에 관해 공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폴리미래는 무사고 10년 달성, 1조 매출 달성 등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진 기업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입사 후에는 실무를 통해 One-Winning Team 문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며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현재도 좋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받으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저를 믿고 최종 합격이라는 소식을 건네준 폴리미래에 감사드리며 인사팀의 일원으로서 성과와 성장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제 마음속 열정을 불러일으켜 폴리미래의 비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폴리미래와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에 현장 전문직으로 입사한 김찬수입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전공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며 꾸준히 취업 준비를 했지만, 취업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늦고 빠름의 차이일 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과는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꿈꾸고 바라왔던 폴리미래의 가족이 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폴리미래에 입사한 후 3개월간 동기들과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도 모르는 사이 힘든 시간도 즐겁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선배님께서도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고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었기에, 이제 그에 걸맞은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회사와 함께 성장해 미래의 저와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김찬수가 되겠습니다!



김찬수 사원



“폴리미래의 발전에 발맞춰 자기 계발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6월에 현장 전문직으로 입사한 윤영권입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 화학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업무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화학공장의 중심축이 되는 생산 조정실에서 공정제어 관련 보드맨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폴리프로필렌 산업에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폴리미래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고 일고의 노력을 통해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기초 기술력으로 확고한 입지를 만들어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실무에 투입되기 전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폴리미래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또 항상 함께하는 소중한 동기들이 있어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팀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어느 팀에 들어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계발을 끊임없이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폴리미래의 발전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권 사원

“최선이 아닌 최고를 지향하는 열정의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현장 전문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 양재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취업을 목표로 기업조사를 하며 처음 폴리미래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회사, 가족 같은 회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최선을 다하여 채용 전형에 임한 결과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간의 인턴 기간 폴리미래의 공정에 대한 이해를 키웠습니다. 더불어 3개의 생산팀을 모두 경험하고 오퍼레이터 직위가 아닌 다양한 직무 교육을 받으며 폴리미래라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11명의 든든한 동기들과 서로 의지하며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생산팀에 배치된 후에도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을 기억하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찾고 서둘 수 있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멋진 선배님들과 좋은 동기와 함께 폴리미래를 더욱 힘차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양재혁 사원

“초심을 잃지 않고 경쟁력 있는 오퍼레이터로 커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 전문직으로 입사하게 된 유태영 사원입니다. 처음 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장치들과 무수하게 연결된 배관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전문대학교에 진학해 화학 공학을 전공하며 P&ID, PFD,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을 배워 여수산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폴리미래라는 기업을 접하게 되었고 제 노력에 운이 따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터무니없는 질문에도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덕분에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길다고 생각했던 3개월의 교육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선배님들,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기들을 만나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페셜리티한 제품으로 경쟁력을 가진 폴리미래처럼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모두 습득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좋은 오퍼레이터로 성장해 폴리미래에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영 사원





# 경영의 언어,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재무팀을 만나다



재무팀의 전통적인 역할이 재무회계, 세무, 채권 관리, 예산 관리 및 유동성 확보와 같은 자금 관리였다면, 현재는 내/외부 관계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회계, 새로운 비즈니스의 셋업 참여, 전사적 위험관리의 수행, 효율성 증대 및 가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전략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업무는 여전히 중요하고 반드시 행해져야 하지만,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그 주요 활동의 중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무팀이 작은 것에 집착하는 "Bean Counter"였다면 현재 재무팀은 재무적 지식과 함께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며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Value Integrator"가 되고자 합니다.





? 재무팀의 구성원을 소개해주세요.

- 장문영 팀장: 회사의 재무 운영 관리 및 전사적 위험 관리
- 구석훈 차장: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및 리포트 작성
- 김가영 차장: 지급, 비용 및 고정자산 관리
- 임승준 대리: 자금 및 보험 관리
- 임미지 대리: 법인세 및 결산
- 채현준 주임: 채권 관리

? 재무팀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1.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및 실적 리포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정보이용자(주주,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재무팀에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회사가 채택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연간 최소 2회에 걸친 회계감사를 통해 업무프로세스와 통제시스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등의 적절성을 확보합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각 조직, 기간별 예상실적과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지급, 비용 및 고정자산 관리

현업에서 작성되는 각종 매입전표와 증빙을 리뷰하고 기일에 맞춰 지급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매월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CAPEX 프로젝트 완료 시 획득되는 투자자산을 회사의 고정자산(Fixed Asset)으로 등록하고 회계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전사의 연간 비용(OPEX)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현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하고, 마감에 맞춰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직원들을 귀찮게 할 때도 종종 있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 자금 및 보험 관리

자금 업무는 주로 외부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회사 내 작은 금융기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회사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필요 시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선물환 거래를 통해 외환거래로 인한 환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재산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등과 같이 기업 경영과 관련 있는 회사 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クレ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4. 세무 리스크의 최소화

사업 전반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세법 및 조세정책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지방세, 국제 조세 등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며 때때로 세무조사 등 국가 감사에 대응하는 일 또한 맡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준비해야 할 각종 서식이 복잡하고 다양한데다,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세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년 개정되는 법령 또한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재무팀은 우리 회사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한편 회사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채권 관리

회사의 영업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영업부서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채권이 약정된 기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전적 혹은 사후적 보전조치를 통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보증, 부동산 등의 담보를 평가하여 각 업체마다 적절한 여신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요즘 재무팀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비즈니스 다각화에 따른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최근 폴리미래의 기업운영환경은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는 울산피피에서 생산한 폴리프로필렌의 재판매 사업을 필두로,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도 발맞추어 Circular PP 비즈니스를 통한 회사의 성장동력을 마련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한 신규 계약체결부터 원료의 공급방식, 제품의 생산공정, 재고관리, 최종 판매 및 수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회계처리, 세무 이슈 및 보고방식 등을 검토하고, 현업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종이 없는 사무실, 'Paperless Office'에 주목

요즘은 많은 관공서와 기업이 '종이가 없는(Paperless)' 업무 환경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여 결재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모든 결재를 전자 문서와 전자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회사에서도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정보/환경보호까지 가능한 Paperless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재무팀에서도 Paperless Office 도입을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성원이 사용하게 될 만큼 다양한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GLOBAL SAFETY DAY



##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산업안전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요소입니다. 기업에 안전문화가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폴리미래에서는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안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호에 '안전제일'을 시행시로 소개합니다. '안전제일'이 어떤 재치 있는 시행시로 탄생했는지 함께 보시죠!



**안** “안전제일”, “안전제일”, “안전제일”  
**전** 전체 임직원이 원팀이 되어 구호를 외쳐봅니다  
**제** 제일 먼저 안전을 생각하는 폴리미래에서는  
**일**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내수영업팀 엄기철 부장 -

**안** 안일한 생각이  
**전** 전대미문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 일찍이 아닌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구매팀 이영숙 팀장 -

**안** 안전 점검 잊지 않았나요?  
**전** 전부 검토 하셨나요?  
**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이니깐요  
**일** 일단 한 번 멈추고 생각해봐요 우리!

- 공무팀 임승면 팀장 -

**안** 안전을 지키는 생활 습관  
**전** 전부 잃기 전에  
**제** 제일 우선 순위로 두세요.  
**일** 일순위로 하면 소중한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 재무팀 김가영 차장 -

**안** 안전하게 직원들이 작업에  
**전** 전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현장 안전교육이 작업시간  
**일** 일분 일초 더 단축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 생산3팀 김권호 주임 -

**안** 안됩니다!!!  
**전** 전 소중하니까요.  
**제** 제발 나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여  
**일** 일 중심 보다는 안전 중심!

- 시장개발팀 박종윤 차장 -





# GLOBAL SAFETY DAY



**안** 안전하게 귀가하는 폴리미래 선배/후배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전** 전체 잠깐 주목해주세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 제(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시어 행복한

**일** 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전환경팀 정태형 대리 -



**안**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전** 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 제일 먼저 주위를 살피고

**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해야 합니다.  
- 생산3팀 유중명 대리 -

**안** 안전제일이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라는 사실을

**전**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제일 먼저 안전을 고려하는 습관이

**일** 일상화되어있는 우리 회사 폴리미래!  
- 안전환경팀 임재영 팀장 -

**안** 안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전** 전부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제** 제일 먼저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일** 일류기업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매팀 송경식 부장 -

**안** 안에서도 밖에서도 지켜야 하는 안전규정

**전** 전체와 개인 모두를 위한 중요한 규칙이지만

**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일** 일상에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 생산2팀 이태양 사원 -

**안** 안전 사고와

**전** 전쟁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제** 제일 소중한 우리의

**일** 일상을 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

**안** 안주하지 맙시다!

**전** 전 세계

**제** 제일가는

**일** 일등 안전관리 기업이 될 때까지!  
- 기획팀 유민희 과장 -

**안** 안전한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전** 전 직원의 웃음 꽃!

**제** 제가 먼저, 우리가 먼저

**일** 일일이 사전체크 해요!  
- 생산1팀 오장훈 사원 -

**안** 안전은 기본입니다

**전** 전체가 지켜야합니다.

**제**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 내수영업팀 박민영 팀장 -

**안** 안전제일 구호아래

**전** 전사적인 안전활동

**제** 제일 으뜸 안전회사

**일** 일류급의 안전관리  
- 생산2팀 신문호 대리 -

**안** 안전을 위해서

**전** 전체 직원들이 안전을

**제** 제일 잘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는

**일** 일등 안전 기업 폴리미래 입니다.  
- 구매팀 박정희 차장 -

**안** 안전하면 폴리미래 이지 말입니다

**전** 전 세계 통틀어도 우리만큼 안전을 잘 실행하는 곳은 없지 말입니다.

**제** 제일 잘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투자이지 말입니다.

**일** 일등은 역시 폴리미래 이지 말입니다!  
- 안전환경팀 양정교 부장 -

**안** 안전한 작업을 강구하는 우리

**전** 전 직원이 하나되어 안전작업을 이끌고

**제** 제일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일** 일구는 당신들은 폴리미래 안전작업에 일등공신 입니다.  
- 생산3팀 신동호 사원 -

**안** 안전에 문제 없다고 자만하지 말고

**전**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제** 제일의 사고없는 안전 사업장을 만들어

**일** 일류 안전 기업이 되는 폴리미래가 됩시다!  
- 물류관리팀 신준식 부장 -







# 2022 Industrial Complex Day



## 폴리미래 김방현 대표이사, 2022 산업단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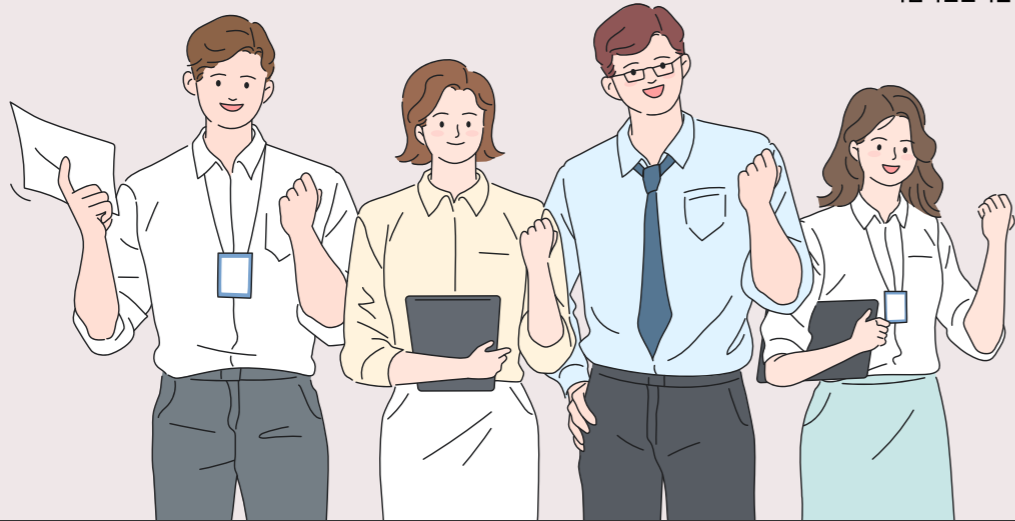
김방현 대표이사가 2022년 9월 22일 서울 지타워 컨벤션에서 개최된 2022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안전/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 건강한 직장생활!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주었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경제적인 조치들로 인해 현재 우리가 처한 석유화학 사업 환경은 과거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폴리미레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인 직원 개개인에게도 필요하다.

사업자관리팀 \_ 이광섭 상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우수한 업무역량을 지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번아웃을 경험하는 모습을 가끔 마주하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멘탈력(Mental Toughness)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건강한 멘탈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불안감 떨치기

대부분의 직원은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인해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준다. 먼저 마음의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변 모든 것들에 예민해진다. 평소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경계를 하게 되고 가볍게 건넌 동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화가 난다. 행동도 변한다. 이에 따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곤두박질친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류 진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용감한 원시인 부족은 위험을 예지하지 못해서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안이 정말 우리에게 불편한 것인가? 우리가 불안할 때 느끼는 생각, 행동, 신체의 변화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불안은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빨간 신호등과 같다. 불안이 나타날 때 긴장돼서 불편하다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나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보자. 어쩌면 불안은 우리가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둘째, 자존감 높이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거의 경험이나 기준에 맞추어 현재의 문제에 대처했을 때, 많은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혼란스러운 시대이다. 중심을 굳건히 잡고 서 있지 못하면 금세 흐트러지거나 무너지기에 십상이다.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에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현재의 자존감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나에게 서서히 스며들어 깊이 뿌리내려 있어 후천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자존감도 삶의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칭찬하기'이다. 직원들 간에 아낌없는 칭찬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칭찬의 활성화를 위해서 '칭찬 일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일 간략하게라도 칭찬 일기를 작성하고 일기장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부분은 내가 나에게 한 칭찬, 둘째 부분은 내가 상대방에게 한 칭찬, 마지막으로 셋째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간단히 메모해 보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칭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 셋째, 전문가 되기

폴리미레와 같은 애자일 조직에서는 한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영업 직원이 회사의 제조, 물류, 품질, 제품 기술지원 등 모든 부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총동원해야 하고, 이러한 팀워크와 역량의 조합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규모가 크고 많은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폴리미레가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규모는 작지만 회사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전문가라 함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높은 지식만을 보유한 직원이 아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말한다. 우리가 전문성을 겸비하고 업무에 몰입할 때 불안감은 감소하고, 목표를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자존감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멘탈이 강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강한 멘탈의 정의는 개인의 근성이나 인내심에 국한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멘탈력(Mental Toughness)은 힘든 현재 상황에 맞서 긍정적인 태도로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개인의 모든 노력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한다. 요즘과 같이 예상치 못한 변화의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과 낮아지는 자존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그것이 폴리미레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플리미래 ESG 경영의 원동력, 기계적 재활용!

플리미래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세계적인 정책 변화와 ESG 경영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해 지속성장팀을 조직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은 크게 화학적 재활용과 기계적 재활용이 있는데, 현재 지속성장팀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입니다. 기계적 재활용이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 재생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기계적 재활용의 과정을 살펴보고 플리미래의 친환경 PP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를 위해 지속성장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장팀 \_ 정상호 차장

### 생활계 폐기물 재생 PP의 광학적 분리 기술 및 공급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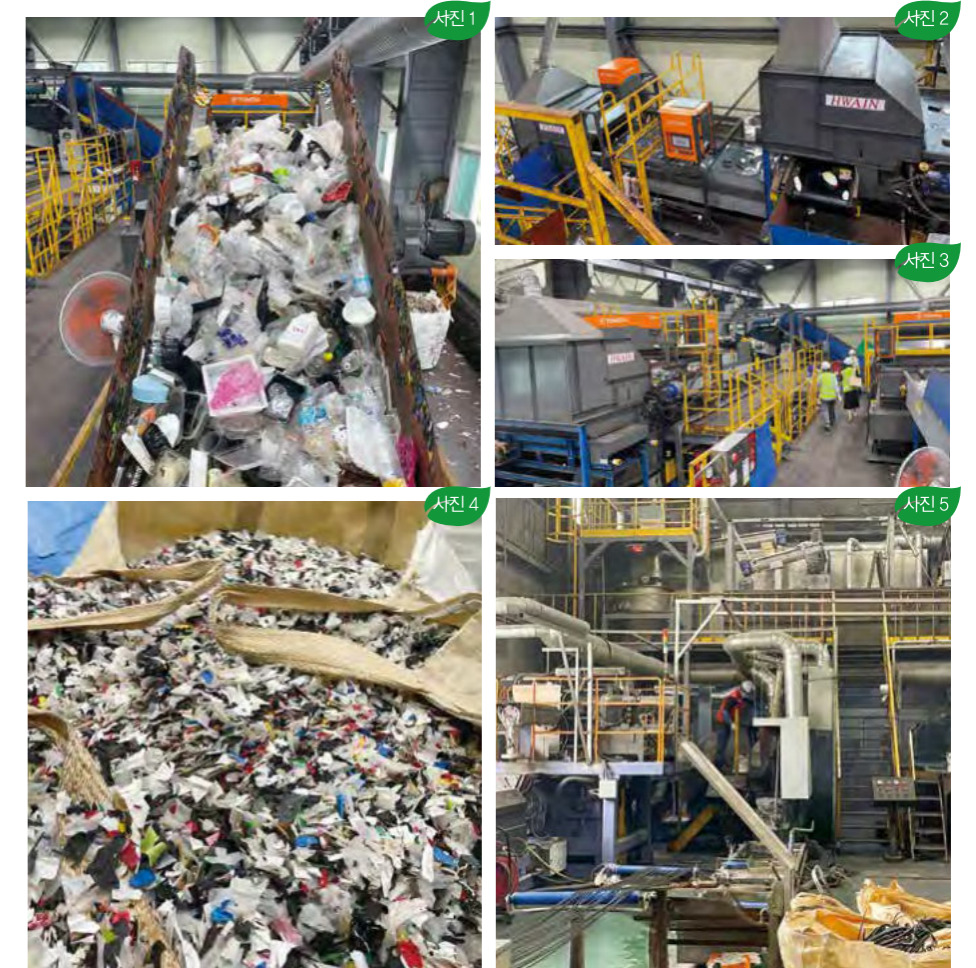
1

우리가 분리수거하여 버리는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수거되어 집하장에 모입니다. 하지만 이 폐기물에는 갖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으므로 플라스틱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몇 달 전 지속성장팀은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 업체를 방문하여 폐기물 중에 PP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사진 1)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이 폐기물들을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방식은 인건비는 많이 요구되는 데에 비해 생산성은 낮고, 분류 정확도가 낮으므로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들을 분류합니다. 폐기물들이 큰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일 때 (사진 2), (사진 3)에 있는 광학 분류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폐기물의 플라스틱 종류를 분석하고, 그 종류에 따라 모읍니다. 이 덕분에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고, 균일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모을 수 있어서 제품의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선별 과정을 통해 PP, PE, PS, PET 등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종류별로 모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플라스틱은 분쇄 과정을 거쳐 (사진 4)와 같은 분쇄품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분쇄품들이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펠릿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진 5)에는 분쇄품을 녹여서 긴 가닥을 뽑아 자르는 방식으로 펠릿을 만드는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정을 통해 분쇄품의 품질을 좀 더 균일하게 하고, 사출 및 컴파운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펠릿 형태로 만듭니다.







### 친환경 PP 용도 및 제품 개발, 외주 임가공 생산 관리

# 3

재생 PP 제품은 물성이 떨어져서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PP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용도별로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므로 재생 PP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신재 PP와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폴리미래는 매우 다양한 고품질의 PP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을 이용해 재생 PP의 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장팀에서는 친환경 PP의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고, 그 용도에 맞는 재생 PP와 신재 PP의 조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8〉과 〈사진 9〉는 지속성장팀에서 개발한 조합으로 재생 PP와 신재 PP를 혼합해 친환경 PP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친환경 PP 제품은 폴리미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임가공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 임가공은 폴리미래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생산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성장팀은 원재료 구매, 생산 일정 및 재고 관리, 제품 출고 등의 외주 임가공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차 없는 업무를 통해 고객의 요청에 맞게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폴리미래는 화장품 용기, 생활용품, 산업용 공구 상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친환경 PP 제품을 개발하여 상업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신규 시장과 용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폴리미래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활용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PP 전문 기업으로서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며 순환 경제 확립과 탄소 중립을 통해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발맞춰 지속성장팀은 이러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계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PP 공급처 개발

# 2

플라스틱 폐기물은 생활계 폐기물 외에 산업계 폐기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폴리미래에서 생산한 PP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폴리미래의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것입니다. 산업계 폐기물은 대부분 이미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런 폐기물을 〈사진 6〉과 같이 모아서 〈사진 7〉과 같은 공정을 통해 펠릿 형태로 만듭니다. 생활계 폐기물 재생 PP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물성의 편차가 크고, 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여러 색깔이 섞여서 최종적으로는 회색이나 검은색 제품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산업계 폐기물 재생 PP는 상대적으로 물성 편차가 작고 밝은 색상을 가지지만 폐기물 종류에 따라 물성이 다양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지속성장팀에서는 다양한 재생 PP들을 이용해 최종 친환경 PP 제품에 맞는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재생 PP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 PP를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공급망을 확립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6



사진 7



# News briefing + PolyMirae

2022 Autumn

## 폴리미래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

폴리미래는 지난 9월 1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서울 본사와 여수 공장에서 창립 22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창립기념행사에서 김방현 대표이사는 장기 근속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장기 근속 패를 전달하였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도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창립 22주년을 축하하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폴리미래에서 일하며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를 전했다.

인사노사협력팀 이동준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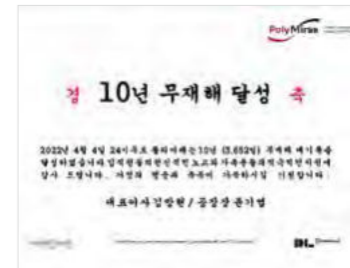


## 무재해 10년 및 400만 인시 달성

폴리미래는 지난 4월 4일, 무재해 10년, 그리고 5월 26일 무재해 400만 인시(人時)라는 뜻깊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달성하기 힘든 소중한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환경/보건 등 모든 분야의 잠재적인 위험성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경영진 중대재해 예방 활동 및 CEO 안전교육을 공장 전 직원 대상으로 벌이고 있으며, 매주 세이프티 토크(Weekly safety talk)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고 있다.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재해 기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태형 대리

## 안전의 날 행사 및 전사 위기대응훈련

폴리미래는 지난 6월 14일, "DRIVE IT HOME(가정까지 안전하게)"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의 날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전사 위기 대응 훈련, 소방 설비 교육 및 현장 실습, 대피용 가스 마스크 착용 훈련 등으로 진행됐으며 폴리미래 전 직원 및 협력 직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해 위험 발굴 및 개선 계획 작성" 경연 및 우수 안전 관리 협력사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 및 협력사 포상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내실 있는 현장 실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안전의 날(Global Safety Day)"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대응은 위기의 확산 방지 및 조속한 사업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와 같은 언론 대응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5월 31일 위기 상황 시 언론 대응 전문가를 초빙하여 폴리미래의 언론 대응 주요 인력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최근 발생한 실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져 실질적 언론 대응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 LyondellBasell Operational Excellence(OE) 감사 실시

LyondellBasell의 정기 OE감사가 지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폴리미래 여수 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Management System, MS)점검과 현장 설비 점검(Field Verification, FV)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OE 감사는 매4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이번 감사에는 5명으로 구성된 LyondellBasell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LyondellBasell의 안전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폴리미래는 최우선 가치인 '안전제일(Safety First)'을 바탕으로 일류 안전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임재영 팀장





# News briefing + PolyMirae

2022 Autumn

## 한영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CEO 특강 및 채용설명회

폴리미래는 지난 4월 27일, 전남 여수에 있는 한영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CEO 특강 및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CEO 특강에서는 석유화학 공정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회사 소개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미래 전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채용설명회에서는 예비 폴리미래 입사회망자를 대상으로 폴리미래의 채용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과장



## 생산1팀 공정 위험성평가 및 작업위험성 평가

폴리미래는 지난 4월부터 근로자 참여하에 위험성 평가를 시작했다. 생산1팀 공정 위험성 평가의 경우, HAZOP(위험과 운전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기존 변경 관리사항뿐 아니라 타사 사고사례를 반영한 바 있다. 폴리미래는 4년 주기로 공정에 대하여 HAZOP 기법으로 공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로 K-PSR(공정안전성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생산팀을 포함하여 물류관리팀, 공무팀, 인사·노사협력팀과 함께 비일상적인 위험성 평가와 비상사태 및 잠재적 위험 상황, HRA(Health Risk Analysis)를 고려한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부장



## 여수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지난 5월 17일, 여천공장에서 여수소방서 및 입주사 4社(YNCC, DLC, PMC, HSC) 합동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여천공장 주관으로 소방서 불시 합동 소방 훈련으로 공장별 응원 출동, 소방시설 활용 능력, 소화 및 전반적인 시설 확인으로 진행됐다. 여수소방서 예방 안전과장으로부터 이번 합동 소방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강평을 끝으로 훈련을 무사히 종료했다.

안전환경팀 박경배 대리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표창 수상

폴리미래는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창립 이래 매년 지속해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과장



## 여수시 안전관리 최우수업체 표창

폴리미래는 지난 3월 29일, 여수시가 주관한 2021년 안전관리 업체 평가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여수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2015년 여수시 안전관리 최우수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이례적인 경우다. 그동안 회사의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열심히 협력하여 이룬 뜻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GoalZERO"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과장

## 한영대학교 석유화학공정과 재학생 공장 방문

폴리미래는 지난 5월, 한영대학교 석유화학공정과 재학생 105명을 폴리미래 여수공장에 초청하여 폴리미래에 대한 소개와 함께 PP(Polypropylene)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공장 견학을 통해 재학생들이 석유화학 제품 생산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산학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전공자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예비 입사회망자들에게 폴리미래의 인지도를 재고하기 위한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인사노사협력팀 황상호 차장



# News briefing + PolyMirae

2022 Autumn

##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

폴리미래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본사에서 2022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번 상견례에는 김방현 대표이사와 정원희 노조위원장 및 노동조합 집행부와 인사노사협력팀이 참여하였다. 2022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노사 간의 상호존중을 공고히 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사노사협력팀 황상호 차장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기술교육

폴리미래는 지난 4월부터 14명의 주니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팀, 시장개발팀, 내수영업팀의 엔지니어 6명과 공정팀, 생산팀의 엔지니어 8명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받고, 발표하며 기술 역량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 교육의 목표는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 개발 그리고 Spheripol process/asset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본사-공장 엔지니어 간의 협업 기회 제공이다. 이를 위해 Catalyst system(촉매시스템과 폴리프로필렌), 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구조-물성 상관관계), Chemical-physical properties(화학적구조-기계적 물성 상관관계), Additive(첨가제), Process(공정)Applications(제품용도), RAPS(제품책임관리 및 규제업무)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가 세미나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한 층 역량이 강화된 엔지니어들이 폴리미래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팀 박세영 과장

## Basell Asia Pacific(BAP) 마케팅 회의

폴리미래는 지난 7월 7일, 싱가포르에서 BAP와 마케팅 회의를 진행했다. BAP 마케팅 회의는 폴리미래 제품의 중국 및 남동아시아 지역 수출을 담당하는 구매 채널인 바젤 아시아 퍼시픽(Basell Asia Pacific)과 분기별로 진행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업 및 마케팅, 기술 등의 관련 부서가 모여 수출 비즈니스 관련 현안과 향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개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정보를 교류했다. 또한 현재 주력으로 판매 중인 하이엔드(High end) 제품군의 시장 확대와 국가별 시장 수출 증대를 위한 계획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장 방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제품 홍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과거 코로나19의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교류할 수 있었다. 폴리미래와 BAP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시장개발팀 심수연 주임

## 중대재해처벌법 및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자율안전진단 실시

폴리미래는 지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노동부 인증 전문기관인 Korea Risk Management Solutions(한국 RMS)을 통하여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이번 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PSM 이행상태 점검을 대체하기 위하여 시행했다. 총 6명의 전문 심사원이 폴리미래의 모든 절차와 시스템부터 현장 설비까지의 안전설비 점검, 폴리미래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시스템 관리 내용까지 확인했다. 점검 결과 별도의 부적합 사항 없이 마무리되어 폴리미래의 우수한 안전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 경영진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 요구 사항을 적용함과 동시에 깨끗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과장

## 인사동정

승진	입사	부서 / 보직변경
2022. 4. 1부 1급(을)사원(차장) 승진 김승현, 박종윤, 황상호	2022. 6. 20부 신입 엔지니어 여지규, 위경재, 이동준, 이태경, 전지현	2022. 2. 1부 공정팀 유승범, 이동준
2급사원(과장) 승진 박세영, 임채휘, 정준호, 정현묵, 황호인	2022. 7. 18부 재무 및 기획담당임원 이진규(전무)	2022. 7. 1부 생산2팀 정태호(팀장) 공정팀 황훈
3급사원(대리) 승진 서성오, 신경수, 임미지, 정태형	2022. 9. 20부 신입 현장전문직 김찬수, 양재혁, 유태영, 윤영권	안전환경팀 정태형
4급(갑)사원(주임) 승진 박종관, 원승현, 이원재	<b>육아휴직</b>	2022. 7. 18부 지속성장 및 기업지원 담당임원 조성출(상무)
5급(갑)사원 승진 김선형, 오장훈, 홍동의	2022. 3. 23부 사업자산관리팀 김승현	내수영업팀 박홍준 사업자산관리팀 임채휘
		<b>정년퇴직</b>
		생산팀 이외오 생산3팀 이정식 공정팀 최석조



#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준비가 우선 필요하다

지난 반년 사이 글로벌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 자원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광종의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천연가스의 가격은 비료 가격을 폭등시켰고, 북반구 중심으로 가뭄과 열파, 홍수로 인해 곡물 생산도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전략과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언론의 영광을 받으려해서는 안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온 동북아 오일허브 외에도 현재 논의되는 수소 허브 등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배출권의 현·선물, 전력선물까지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상품거래소(KCX: Korea Commodity Exchange)의 설립이 우선이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_ 박호정 교수

## 에너지 안보의 현주소와 관점의 전환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훨씬 이전부터 주요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 랠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주요국에서 선언된 탄소중립은 메이저사의 화석연료 투자를 급속히 축소시켜 가격상승 요인이 되었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국의 화폐풀기 정책 역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얹힌 격이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지라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과거로 회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에 상관없이,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넘거나에 상관없이 언제나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13세기 중동의 철학자인 나스레딘 호자에 관한 일화다. 어느 날 늦은 밤길을 걷던 행인이 길가의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호자를 보았다. 무엇을 그리 찾고 있느냐고 묻자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집에서 잃어버린 것을 왜 길에서 찾느냐고 행인이 질문하였다. 돌아온 호자의 대답은 어이가 없는 것이었다. 가로등이 있어 밝기 때문에 길에서 찾는다는 대답이었다. 중동의 현자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찾기 힘든 진실보다는 편리하나 엉뚱한 곳에서 대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풍자한 것이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잦은 정책실패는 이의 해답을 수급관리에서 찾으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위기 발생 이후의 가격통제, 수급통제, 해외자원 강제인수 등은 모두 사후약방문과 같은 조치로서, 에너지와 자원안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우선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기관이나 연구자



다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중단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통일된 견해를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그러하다. 최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자원안보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정적인 가격'이 국내의 소비자 대상 공급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반입하게 되는 자원의 가격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행사하게 되는 정책수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통제와 해외광물자원의 강제적 인수 등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의미로 안정적인 가격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외자산의 확보, 유연한 구조의 계약체결과 같은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 ENERGY SECURITY



강건하며 지속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살펴보면 28%로서 중국의 65%, 일본의 7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서 해외에서의 에너지 자원의 직접 개발과 자본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공적부문의 투자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11년의 70억 달러에서 2020년의 7억 달러로 무려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민간 대상 용자예산은 2010년의 약 3,000억 원에서 2021년의 349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최근 일련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략 광종 자주개발률〉

구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6대 전략광종
중국	93%	70%	24%	24%	67%	49%	65%
일본	50%	58%	101%	131%	65%	27%	76%
한국	34%	1%	34%	12%	22%	47%	28%

\* (중국/일본) S&P Global, WoodMackenzie 등 공시자료 분석, (한국) 해외자원개발 현황분석 자료 : 한국산업연합포럼, 총성없는 전쟁, 자원전쟁과 대응방안, 3.23, 2022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공기업은 해외자원의 직접 개발보다는 R&D와 인력양성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자원 개발은 일종의 종합예술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의 경영과학과 정치, 외교수단이 동원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직접적인 참여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원개발의 주체적인 역할은 민간이 담당하되 정부는 고급 정보의 제공과 금융 및 세제지원, 외교관계 수립 등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정부는 측면지원, 물밑지원의 형태로 해외 자원개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후, 민간 상사와 INPEX의 협업 관계를 통해 오늘날의 자원개발 성과를 이룩한 경험이 있다.

규모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민간상사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매출액 기준으로 현대상사 5조 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40조 원, LX인터내셔널 19조 원 정도로서, 이는 일본의 스미토모 42조 원, 미쓰비시 상사 123조 원, 미쓰이 100조 원 등과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상사의 특성 상 에너지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 수평 비교는 힘들지만, 어쨌든 에너지 대소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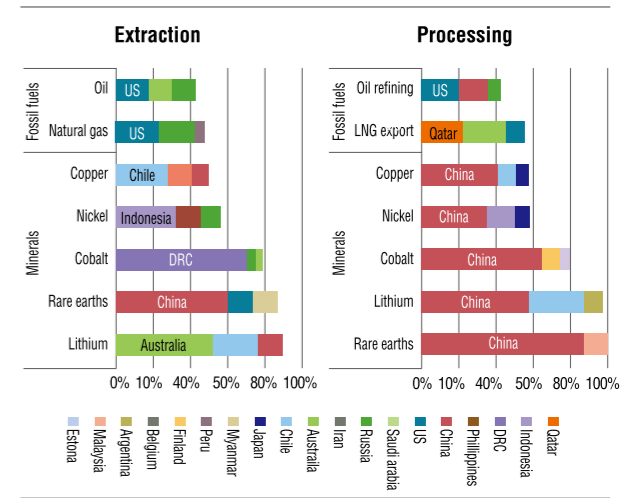
원개발 종합상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점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그리고 용자 비율의 확대 등이 적극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내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시스템의 거버넌스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대책에 전문 트레이딩 산업 역시 포함 육성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LNG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도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경제 및 에너지 대국 중에서 전문화된 상품거래소를 갖추지 못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인 KRX가 상품거래소 역할까지 맡고 있으며 그곳에서 배출권과 금과 돈육의 선물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품 거래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체제가 아닌데, 금과 돈육 선물거래가 KRX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온 동북아 오일허브 외에도 LNG 허브,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소 허브 등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배출권의 현·선물, 전력선물까지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상품거래소(KCX: Korea Commodity Exchange)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품거래소는 LNG 직도입의 활성화를 계기로 거래 유연성의 확보, 리스크 관리와 헷지 수단 확보 이외에도 플랫폼 자체가 제공하는 공급 안정성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와 수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일허브, LNG 허브, 수소 허브 등이 문자 그대로 허브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축 시설 이외에도 트레이딩 기능은 필수적인 바, 통합된 상품거래소의 설립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총성 없는 에너지 안보 전쟁 속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는 자원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광종인 리튬, 니켈, 코발트의 수요는 IEA에 의하면 2020년 대비 2040년 25배에서 30배 급증할 전망이다. 이들 자원은 이미 주요 자원보유국에서조차 자원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로 우리가 개발할



자료 : IEA,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2021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코발트의 글로벌 공급 80%를 차지하고 있는 콩고에서 상당수 광산은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나 최근 콩고 정부는 여러 유형의 소송을 통해 일부 광산권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격상한제나 배급제 실시, 해외광물자원의 강제 인수 조치 등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에너지 안보 수단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직접개발과 자본투자 등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에너지 광물자원의 분포는 특정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미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소극적인 전략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며 도발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탐다운 형태의 강제계획보다는 시장원리를 존중할 때에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래 플랫폼이 설립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유연한 계약과 물류체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MZ세대들의 잠재된 취향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 ‘할매니얼’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할매’(할머니의 방언) 입맛과 취향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인 ‘할매니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옛날 것에 대한 인기가 남다른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유행이 돌고 돌아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할매니얼’ 트렌드에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 자유기고가 \_ 명소연

‘할매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옛날 할머니 소식품, 취향 그리고 입맛을 좋아하며 생겨난 일종의 신조어다. 유행은 늘 돌고 돈다는 우리의 말처럼 옛날 어른들의 복고풍이 MZ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식품과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할매니얼 트렌드 중에서 가장 강하게 업계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식품업계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까지 맞물리면서 자극적인 맛 보다는 전통음식에서 즐길 수 있는 담백하고 때로는 건강한 단맛이 대세로 떠올랐다.

인스타그램에는 ‘할매입맛’ 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약 4만 5,000개가 넘을 정도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MZ세대의 할매취향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떡, 강정, 약과는 MZ세대 사이에서 ‘힙한 간식’으로 불리며, 유명 약과점의 경우 ‘약케팅(약과+티케팅)’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손쉽게 구하기 어렵다.

최근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뜻밖의 매출고를 올린 기업은 SPC 베스킨라빈스다. ‘꼬숯달달’이라는 키워드로 ‘아이스 초당 옥수수’ 상품을 출시해 고즈넉하고 정겨운 시골 할머니 집에 온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당도 높은 초당 옥수수만을 선별해 아이스크림을 제작한 만큼 적당한 당도와 사이사이 바삭하게 으스러지는 옥수수가 밀레니얼과 기존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 외에도 지난 여름 롯데리아에서 출시한 ‘추억의 디저트’는 미숫가루와 과배기를 재해석한 디저트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식품 업계에서는 어르신들의 입맛을 재해석한 상품을 지속해서 리뉴얼하고 발전시켜 옛것의 감성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할매 취향은 비단 식품업계에만 영향력을 끼쳤을까? 음식과 함께 또 다른 역주행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패션업계다.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빈티지 스타일의 꽃무늬 가디건, 옴뻬 바지 등 ‘그레니룩(Granny Look)’, ‘할미룩’이 유행이다. 촌스러워서 오히려 유행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일명 ‘할미룩’으로도 불리는 이 스타일은 기성세대에게는 예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젊은 층에서는 ‘힙스러움’으로 통하고 있다. 할매니얼 패션은 1970~80년대 할머니들이 주로 입었던 긴 기장의 카디건이나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옷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복고 트렌드는 장기화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억눌려졌던 자기 개성의 표출이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어우러져 조금 더 편안한 의상과 개성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개개인의 취향과 감성이 중요시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옛날 옷장 속 나만의 스타일을 개척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유튜버 스타들의 활약상을 빼놓고 지나갈 수 없다. 이들은 자신이 걸여온 삶의 이야기와 경험담을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며, 시니어의 노련함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은다. 주로 고민이 있고 실의에 빠진 많은 젊은이에게 삶의 희망과 힘을 보태 주고 있다.

할머니 패션 유튜버 ‘밀라논나’는 잠시 휴식을 가지며 현재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80만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할머니 유튜버’로 ‘밀라논나(장명숙)’라는 이름을 날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외에도 2012년 퇴직한 박일환 전 대법관이 운영하는 ‘차산선생법률상식’이라는 계정도 운영되고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은퇴 후 잠시 자서전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법률 상식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할매니얼의 또 다른 이면은 단순히 옛것을 맹목적으로 재해석하고 유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지혜도 함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향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순기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요즘이다.



▲ 차산선생법률상식 (2022.10.09). 집사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YmFctmTZ5v8>

▲ 밀라논나 Milanonna. (2022.7.08). [eng] 이탈리아 가기 전에 꼭 봐야하는 영상!!!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w3q3fNpDJHM>



# 낭만의 계절 가을과 함께 문화·예술 감상 충전 시작!

# Autumn



가을만큼 우리의 감성을 다독여주는 계절이 있을까. 실외 마스크 해제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요즘 의미 있는 야외활동을 찾는 이들이 거리를 메운다.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풍요롭게 사색해보자. 가을의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닮은 뮤지컬 공연부터 알록달록 가을의 색을 담은 미술전까지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가을을 만끽해보면 어떨까. 가을 문화계가 우리의 감성을 100% 충전.

문화칼럼니스트 \_ 주연



## Musical

### 뮤지컬 <마틸다>

뮤지컬 마틸다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어린 소녀 마틸다가 부모와 학교 교장의 학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영국 최고의 명문 극단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SC)가 제작하고 매튜 와처스(개발 및 연출), 피터 달링(안무), 팀 민친(음악), 폴 키이브(무대 미술) 등 웨스트엔드 최고의 창작진이 완성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으며 한국에 상륙한 마틸다는 한국 뮤지컬의 지평도를 바꿨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초, 비영어권 최초로 서울 LG아트센터에서 189회 공연하며, 약 17만 관객을 동원했다. 뮤지컬 <마틸다> 한국 공연 후 그해 한국 뮤지컬 결산 자료에서는 '가족 뮤지컬 저변 확대의 시작', '뮤지컬 <마틸다> 관객층 다변화로 시장 확대 견인' 등 한국 뮤지컬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2대 마틸다와 크런첸 스쿨 학생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약 900여 명, 평균 연령 11세 아역배우들이 지원했다. 국내외 스태프들은 2022년 뮤지컬 <마틸다>의 긴 여정을 함께할 주역들을 선발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과 시범을 보이며 캐릭터와 대사 그리고 동작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렇게 3차에 걸쳐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마틸다를 비롯해 각 캐릭터에 맞는 20명의 아역배우를 심사숙고해 찾아낸 만큼 아역 배우들의 열정 넘치는 연기가 기대되는 올 하반기 최고의 뮤지컬이다.

**♥ Poly's pick** 대한민국 2대 마틸다와 크런첸 스쿨 학생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감동 성장스토리를 함께하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하는 올 하반기 최고의 가족 뮤지컬!



자료제공 : 신시컴퍼니

- 기간 : 2022. 10. 5 ~ 2023. 2. 26
- 시간 : 화-금 오후 7시 30분 | 토-일 오후 2시, 7시 | 월 공연 없음  
(단, 10/8(토) 7시 1회 공연, 10/10(월) 2시 1회 공연, 10/11(화) 공연 없음)
- 장소 : 대성 디큐브아트센터(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 Exhibit

### 전시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이중섭>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이중섭>은 2021년 4월 고(故) 이견희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88점 중 이중섭의 작품 80여 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존 소장하고 있던 이중섭 작품 중 10점으로 구성, 총 90여 점의 이중섭 작품만을 선보이고 있다. 기증된 이견희컬렉션에서 이중섭의 작품은 국내외 작가를 통틀어 유영국, 파블로 피카소에 이어 가장 많고, 회화 및 드로잉의 비중이 있어서는 가장 높다.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이중섭>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중섭을 다시 보는 시도로서 오랜 기간 미술관이 축적해온 상당수의 미술품 수집과 조사·연구 성과를 전시로 풀어낸 것이다. 이중섭(1916년~1956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시대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번 전시는 이중섭의 작품세계를 1940년대와 1950년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1940년대는 이중섭이 일본 유학 시기부터 원산에 머무를 당시 작업한 연필화와 엽서화를, 1950년대는 제주도, 통영, 서울, 대구에서 그린 전성기의 작품 및 은지화, 편지화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재료와 연대를 조합해 예술가 이중섭과 인간 이중섭을 고루 반영하고, 그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한국미술명작> 관람 기회를 놓쳐 아쉬웠다면, 이중섭의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의 관람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중섭 작을 집중 조명하여 구성한 전시인 만큼 한국 미술판에서 지난 30년간 철벽에 싸였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다.

**♥ Poly's pick** 삼성그룹 총수 이견희(1942~2022) 회장이 수집한 지난 이중섭에 관한 시기별 주요 작품과 편지 등 작가의 삶에 얽힌 아카이브 자료가 궁금하다면 놓치지 말자.



▲ <가족과 첫눈>, 1950년대 전반기, 종이에 유채, 32×49.5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 <두 아이와 물고기와 계>, 1950년대 전반기, 종이에 펜, 유채, 32.8×20.3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 기간 : 2022. 8. 12 ~ 2023. 4. 23
- 시간 : 10:00 - 21:00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전시실





Exhibit

### 전시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2021년 4월 고(故) 이견희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88점 중 고갱, 달리, 르누아르, 모네, 미로, 사갈, 피사로의 회화 7점과 피카소의 도자 90점 등 해외미술 작품 총 97점을 선보인다. 기증 1주년 기념전에 나왔던 모네를 제외하면 모두 처음 공개된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프랑스는 정치 및 경제적 안정과 과학, 문화의 발전까지 뒤따라며 '아름다운 시절'로 불리는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기를 구가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8인의 작가들은 벨 에포크 시기 파리에서 활동했는데 이때 파리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미술의 중심지였고, 프랑스 국적의 고갱, 르누아르, 모네, 피사로 이외에 스페인 출신의 달리, 미로, 피카소, 러시아 출신의 사갈도 파리에서 활동했다.

이번 전시는 8명의 거장이 동시대 파리에서 맺었던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증된 이견희컬렉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카소의 도자는 1948~1971년에 제작된 '피카소 도자 에디션'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전시는 거장들의 관계 및 피카소의 도자와 다른 거장들의 회화가 연계되는 지점을 주축으로 크게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과천의 자연과 어우러진 서양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으로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기회다.

**Polu's pick**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서양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하며 보다 더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과천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자.



▲ 폴 고갱 '센강 변의 크레인' 1875 캔버스에 유채 77.2×119.8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 마르크 사갈, '결혼 꽃다발' 1977-78, 캔버스에 유채, 91.5×72.8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 Marc Chagall - ADAGP Paris - SACK Seoul 2022

- 기간 : 2022. 9. 21 ~ 2023. 2. 26
- 시간 :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어린이 전시 <서도호와 아이들 : 아트랜드>

서울시립미술관은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서도호를 초청하여 2022년 어린이 전시 <서도호와 아이들 : 아트랜드>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서도호 작가가 가족과 함께 7년 동안 어린이용 점토로 만든 조각 <아트랜드>를 기반으로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북서울미술관의 개방적 특성을 살린 어린이 관람객 참여형 전시다. <아트랜드>는 어린이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왕국을 구현한 또 다른 세계의 축소판으로 그곳에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다른 조건의 기후와 환경을 토대로 한 새로운 종의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다.

서도호 작가가 만든 <아트랜드>에는 전시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창조물이 더해지며 작품의 결과물은 예측할 수 없는 환상의 공간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동안 북서울미술관이 시도했던 다양한 차원의 어린이 전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참여형 전시의 가능성을 아이들과 함께 실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작용 점토는 전시장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족들과 발걸음 할 수 있다.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재된 창의력을 발현시킨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번 전시는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만큼 작가와 함께 작품을 완성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Polu's pick** 영국 런던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도호 작가의 작품에 우리 가족 모두 참여해보고 싶다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런던을 담은 아트랜드를 만나보자.



- 기간 : 2022. 7. 26 ~ 2023. 3. 12
- 시간 : 화 - 금 10:00 - 20:00  
하절기 토, 일, 공휴일 10:00 - 19:00, 동절기 토, 일, 공휴일 10:00 - 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문화가 있는 날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22:00까지 연장
- 장소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YEOSU



Exhibit

### 빛과 소리로 전하는 자연의 감동, 아르떼뮤지엄

KTX 여수엑스포역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들어서면 아르떼뮤지엄여수를 만날 수 있다. 2012년 개최되었던 여수엑스포 A관 3층 전체를 리뉴얼하여 문을 열었다. 아르떼뮤지엄은 바닥 면적만 4,960㎡(1,500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시공(時空)을 초월한 자연(ETERNAL NATURE)'을 콘셉트로 각각 다른 주제로 준비된 총 11개의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 아르떼뮤지엄을 찾으면 이제 가치를 잊지 말자.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라는 점, 전시의 모든 작품을 다 감상하려면 최소 1시간 반은 필요하다는 것, 자유 관람 방식으로 11개 작품을 원하는 만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르떼뮤지엄의 주제는 '빛과 소리가 만든 영원한 자연'이다.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 구현된 작품 공간 내에서 자연 속의 다양한 공간과 소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획 전시 공간인 가든(GARDEN)을 포함하여 플라워(FLOWER), 비치(BEACH), 핑크라군(PINK LAGOON), 워터폴(WATERFALL), 웜홀(WORMHOLE), 스타(STAR), 웨이브(WAVE), 라이브 스케치북(LIVE SKETCHBOOK), 문(MOON), 정글(JUNGLE) 등 총 11개의 전시 공간과 '아르떼 티바(ARTE TEABAR)'라는 체험형 F&B 시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각 전시 공간에 공통적으로 디스트릭트 특유의 강렬한 시각적 연출에 공간의 규모를 더욱 확장해서 느낄 수 있도록 거울이 많은 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시각예술로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 역할을 한다.

**Polu's pick** 시각적인 강렬함과 더불어 그래픽 어워드를 2회 수상한 황병준 대표가 만들어낸 사운드, 품격 있는 향기까지 가미된 몰입형 전시관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이번 주말 여수 아르떼뮤지엄으로!



▲ 핑크라군: PINK LAGOON(핑크라군) 환상 속의 핑크 빛 바다, 핑크라군 ▲ 스타: STAR(스타) 페이퍼 아트가 만든 어둠 별빛의 향연

- 기간 : 2021. 8. 1 ~ 연중무휴
- 시간 : 10:00 - 20:00(19시 입장 마감)
- 장소 : 아르떼뮤지엄여수(여수시 박람회길 1국제관 A동 3층)

### 깜찍한 테디베어들의 집합소, 테디베어뮤지엄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디베어를 여러 가지 테마와 접목시켜 재미있는 볼거리, 알거리를 제공하는 물론 기존 테디베어 박물관과 차별화된 세계 최초 포토 스튜디오형 테디베어 전시로 재탄생했다.

총 10개의 관으로 구성된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은 '인스타그램러블한 포토존 전시회'를 주제로 하여 전시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특별한 전시회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에 방문하는 관람객은 오브제, 조명, 여러 가지 소품이 완비된 약 40개 이상의 독립된 포토존에서 나만의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토리가 녹아있는 빅 테디베어 포토존과 선물 같은 포토 스튜디오가 가득한 원더박스, 터치하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터치월, 철저한 고증을 통해 경이로운 관광지를 그대로 재현한 국내 유일 테디베어가 메인으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야외 활동을 뒤로하고 적절한 실내 놀이 공간을 찾고 있다면 안성맞춤이다. 더불어 아가자기한 테디베어와 포토존이 많아 여수 여행 추천 여행지로 급부상 중에 있다. 전시관이 넓게 구성되어 있어, 층마다 다른 콘셉트의 테디베어를 만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층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큰 크기의 테디베어부터 한 손에 꼭 쥐어지는 앙증맞은 테디베어까지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여수 실내 나들이 장소를 찾고 있다면,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을 적극 추천한다.


**Polu's pick** 깜찍한 테디베어와 함께 나만의 특별한 사진을 만들면 어떨까!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에서 사진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가능하다.




▲ 자료제공 : 여수 테디베어 뮤지엄

- 기간 : 연중무휴
- 시간 : 10:00 - 19:00(18시 30분 입장 마감)
- 장소 : 여수 테디베어뮤지엄(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7-7)





# 다른 그림 찾기



2022년 가을호 사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  
 (pmc.magazine@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통권 48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기획팀 유민희 과장, 인사노사협력팀 장유나 사원

# Metocene HM840N for EV car interior trim

투명 PP의 혁신, 프리미엄 전기차량을 위해  
 폴리미라에가 제공하는 고강도,  
 낮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가진 투명 PP 솔루션!  
 PolyMirae's innovative solution for premium electric vehicles with  
 high stiffness and high transparency PP!



## Metocene HM840N

메탈로센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Metocene* HM840N은 기존 PP보다 매우 적은 저 분자량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매우 좁은 분자량 분포도를 가진 제품으로, 특히 높은 강성과 고광택, 고투명 등의 장점으로 EV car의 interior parts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tocene* HM840N has very low oligomer content,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very narrow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for interior parts of electric vehicles as well as the benefit of high stiffness, high gloss, and good transparency.